

#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임금 고용 확대나 노동시장 양극화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나라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불평등의 심화나 저임금 고용의 증가와 같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 1%에 속하는 최상위소득계층이 점유하는 소득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이나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현상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중요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2011년 9월호에는 저임금고용에 대해, 2012년 12월호에는 임금주도 성장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연합 나라들의 고용구조 변화를 추적하는 ‘유럽 일자리 동향(European Jobs Monitor)’ 분석을 통해 고용양극화 현상을 제기한 Eurofound의 보고서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 고용양극화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간수준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때 분석대상이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일자리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고용양극화를 분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슈티글리츠가 제안한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단위는 산업과 직종을 결합하여 정의되며 동일 산업에 속하는 같은 직종의 일자리는 동일한

일자리로 본다. 그리고, '산업×직종'으로 이루어진 셀들 가운데 같은 셀에 속한 노동자들의 중위임금으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 학력으로 측정한 숙련수준 및 일자리 질과 관련된 다차원적 지표에 근거한 대안적 일자리 분류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지구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2007년 이후의 경제위기 전후에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Eurofound의 연구는 유럽지역 나라들에서 고용구조가 양극화되는 구조적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단순반복적인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반면 돌봄서비스 등 저임금의 대신서비스 노동은 기계에 의해 대체되지 못한다는 '반복노동편향적 기술변화(routine-biased technical change)'와 국제교역 및 해외이전을 통해 선진국에서 중간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세계화의 효과를 제시한다. 이는 Eurofound의 이전의 연구결과에 비해 기술과 경제 구조 등 구조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기술과 세계화가 모든 노동수요에 유사한 양극화 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분명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단체교섭과 같은 제도의 일부 특성들은 여러 다른 유형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양성이 발견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용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장기간의 구조적인 추세와 경기순환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들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고용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 장기간의 추세와 시기별 차이를 동시에 살펴볼 만큼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자리에 기초한 분석방법의 타당성이 통계자료의 적합성과 신뢰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용양극화 현상에 대한 세심한 분석에 기반을 두고 OECD에서 가장 저임금노동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